

무슬림에게 복음을

현재 이슬람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강의를 보면 히브리 성경(타나흐)에 무함마드가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타나흐에 무함마드가 출현했다는 것은 그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대체하는 최후, 최대의 선지자라는 그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알 하야트 TV와 간단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아가서 5:16에 보면, 솔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 자신의 사랑하는 자가 “사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 단어는 “막흐만힘”입니다. “카마드”라는 어근은 “묵하마드”라는 이름의 어근과 같습니다. 사랑스럽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또한 십계명 속에 등장하는 단어의 어근이기도 합니다. “탐하지 말라.” 현대 히브리어에서 “카무드”라는 단어는 “자기 sweet-heart”라는 뜻으로 친구나 연인들 사이에 흔히 쓰이는 애칭입니다.

무슬림들은 아가서의 이 단어가 자신들의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로, 높임의 의미에서 복수로 쓰였다고 주장합니다. 실상 이 단어가 복수인 것은 맞지만, 분명히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진 않습니다. 시상에서 사랑 받는 사람의 성품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그 전에 나오는 명사와 병행을 이루는데, 사랑하는 자의 입이 “달콤하다”고 한 부분입니다. 히브리 원어는 모두 복수 명사 형태로, “달콤한 것들”과 “사랑스러운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슬림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타나흐의 본문을 언급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로 세 종교 모두에 있어 근원적인 권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예슈아보다 약 천 년 앞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무함마드보다는 1,600년 앞서 쓰여진 것입니다.

30년 동안 저는 아랍 그리스도인들과의 화해 컨퍼런스에 참여해 왔습니다. 저는 단순한 화해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꿈꿔왔습니다.

약 십 년 전, 저는 요르단의 화해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할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획자들에게 히브리어로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통역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출신의 아랍 목회자들은 그 대화를 듣고는 히브리어로 복음을 듣고 싶다고 달려와 말했습니다.

현재 저는 마음 속에 계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랍인들 가운데에는 유대 민족에 대해 감정이 격앙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하드 교의의 주입 때문에, 그러한 감정들은 대부분 극도로 적대적입니다. 이슬람 세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집착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집착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랍 무슬림들이 이스라엘 출신의 유대인으로부터 히브리어로 (통역 혹은 자막을 통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매혹적이고 전혀 새로운 체험일 것입니다.

저희는 무슬림들과 복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는 먼저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과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아랍 전도자들을 후원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역자인 하룬 Harun, 바쌌 Basaam, 자흐 Zach, 잭 Jack, 싸미르 Samir, 빅터 Victor, 아미르 Amir 등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가, 인종적 화해와 연여 아랍 민족으로부터 유대 민족에게로, 유대 민족으로부터 아랍 민족에게로 전해질 때입니다.

다음은 제가 알 하야트에서 저희 친구들과 녹화한 두 번째 메시지의 요약본입니다(이것이 시작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수세기 동안 저희 민족들 간에는 심각한 적의가 있어 왔습니다. 이 증오의 순환을 피할 방법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건 메시아에 예슈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분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 역사 가운데 그 분께서만 이러한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분께서는 이 사랑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증오의 고리를 끊고자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군가 먼저 나서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이 그 첫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이슬람 배경을 가진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써 믿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말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그 분을 믿는 것도 금지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화해를 입은 유대인과 무슬림들이 수천 명 있습니다. 그 분을 통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영적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증오의 고리를 벗어나고 싶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원하는 바를 결정해줄 순 없습니다. 제가 그 증오를 벗어나도록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증오를 벗어나고픈 분들이 있다면,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이십니다(요 14:6). 증오는 영적 어둠의 한 형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요 1:5, 9).

모든 이들이 평화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평화 조약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증오가 사라질 때까지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희생적 사랑만 그 증오를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분간해야 합니다. 평화는 결과입니다. 사랑이 원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밅니다. 와서 그 분 안에 있는 용서와 영생, 거룩한 사랑을 찾으십시오.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화해까지도 그 안에서 발견하실 겁니다.”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대에 주어진 중대한 명령입니다. 구원과 화해의 복음이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에게 전달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